

회색문헌 통합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Expanding Information Services of Grey Literatures through the Central Management System

김 미 진* · 남 영 준**

Mee-Jin Kim · Young-Joon Nam

차 례

- | | |
|-------------------|--------|
| 1. 서 론 | 4. 결 론 |
| 2. 회색문헌의 유용성 | · 참고문헌 |
| 3. 회색문헌의 이용활성화 방안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각 기관에서 소장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회색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회색문헌이 갖고 있는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회색문헌이 갖는 특성 가운데 회색문헌의 공유를 저해하는 열람제한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고 실제적인 회색문헌 집중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조사하였다. 기초자료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회색문헌을 수집, 처리 및 서비스하는 기관의 정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정보관리담당자들은 보고서를 회색문헌의 여러 종류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지도와 학위논문과 같은 자료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었다. 또한 자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Profess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Jeonju University, mjkim@jeonju.ac.kr)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
(Profess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Jeonju University, nobody@mail5.hanmir.com)
· 논문접수일자 : 2003년 3월 3일
· 게재확정일자 : 2003년 3월 12일

관 회색문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외부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을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회색문헌 공유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경제적 지원보다 자료의 공유라는 유인책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키 워 드

회색문헌, 집중관리, 회색문헌 공유시스템, 회색문헌 관리시스템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grey literatures,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stricting the sharing of grey literatures in Korea, an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efficient collection and utilization system of grey literatures being produced and managed by either government agencies or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A survey instrument was designed to measure the current status of grey literature management systems and to elicit expert opinions from information professionals in information centers for an efficient system of grey literatures.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professionals considered the technical reports as the most important type of grey literatures, but maps and dissertations as the least important type of information value. Related to the participation for the central system of grey literatures, many respondents preferred to utilize the grey literatures owned by other information centers, but they showed a neutral interest level in sharing their information centers grey literatures with other centers.

KEYWORDS

Grey Literature, Unified System, Sharing System of Grey Literature, Grey Literature Management System.

1. 서 론

국가 자산으로 정보와 같은 무형 재산이 물질적인 자산에 비해 가치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이 국가의 시책이 되고 있는 것은 정보화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효

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한편 기술보고서와 같은 회색문헌은 백색문헌에 비해 외부이용자 열람에 대해 폐쇄적인 형태를 취하며 내부문서 혹은 내부보고서로 간주되어 이를 공유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회색문헌의 공유를 저해하는 이유는 자

관에서 수집한 자료나 정보는 자관의 물리적 자산으로 간주되고 이의 공개는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회색문헌과 같은 내부 지식자원을 공유함과 아울러 선진 각국의 주요 지식자원을 수집하여 국가내 모든 기관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확보와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백색문헌은 유통과 판매가 대부분 상업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이의 보급과 열람은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기관에서는 백색문헌의 수집과 전파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회색문헌은 이용자의 제한이라는 폐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보의 공개와 전파가 상대적으로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정보공유 체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회색문헌 수집, 처리 및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 민간기업이 이를 주도할 경우 기업이나 다른 국가 기관에서 자신들의 내부 지식자산인 회색문헌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색문헌과 같은 내부 열람용 지식의 공유는 기관이나 단체간 주고 받는 (give and take)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기업과 기업간의 정보공유 시스템보다는 신뢰도와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중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진 각국에서도 국가 중앙도서관 이외에 회색문헌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지식자원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회색문헌은 특정 기관에서 서로 다

른 목적으로 연구된 결과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지식은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그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회색문헌의 체계적인 수집과 처리를 위하여 국가 주요 지식자원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포괄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종이용자의 연구를 지원하면서 회색문헌을 관리하는 정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회색문헌이 소속 기관의 자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지와 담당자의 자료 공개에 대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색문헌 집중관리에 따른 배포문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회색문헌을 생산 혹은 이용하는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회색문헌의 관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요구조건과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 회색문헌 대표기관의 정책과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회색문헌의 유용성

2.1 회색문헌의 특성

회색문헌(grey literature)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제한없이 유통 공개되는 자료를 지칭하는 백색문헌(white literature)에 대한 대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회색문헌은 비공식적인 유통경로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지칭하는데, 이는 이들 자료의 이용자가 한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밀유지를 위해 제한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회색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료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정형성을 벗어난 정보자료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회색문헌이란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한 것은 아니다. 회색문헌의 범주는 초기에는 보고서(reports literature)개념만으로 제한되었으나, 1976년에 LISA의 키워드 목록에서 'grau literature (grey literature)'란 개념으로 그 범주와 회색문헌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회색문헌에 대한 정의를 Wood(1984)는 "확인과 입수가 용이하지 않는 자료로서 정규 출판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으며 상업적인 서적상을 통해 구입될 수 없는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선언으로 회색문헌에 대해 완벽히 정의내리기에는 회색문헌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즉, 이 선언은 그 설명이 부족하며 회색문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만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만 있다고 판단된다. 프랑스 학자인 Debachere(1995)는 프랑스표준협회(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에서 출간한 자료에서 회색문헌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회색문헌을 "상업적 출판과정과 상업적 출판경로 그리고 서지사항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단지 제한된 이용자만을 위해 활자화되었거나 인쇄된 문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Auger(1996)도 "회색문헌은

그 개념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단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고서 자료', '비전통적 자료' 그리고 '서적 판매를 통해 얻기 어려운 자료'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프랑스에서 통용되고 있는 회색문헌에 대한 해석은 정규적으로 출판되지 않으며 출판된 자료라도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거나 상업적 출판물 이외의 자료로서 배포가 제한되고 서지류에 등록이 되지 않는 자료를 총칭하고 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문에 대해 보고서(reports literature)라는 용어로부터 회색문헌에 대한 개념이 출발하였다. 미국은 회색문헌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라고 인식하고 있다(Bichteler 1991). 이것은 미국의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에서 일반화시킨 용어이며,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입수하기 어려운 보고서(difficult-to-obtain report)'로 인식하고 있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5). 미국에서는 회색문헌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판되는 것은 아니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보고서, 내부자료, 논문 등의 준출판물로서 서지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자료를 총칭하였다.

독일 Norm에서 출판된 행정관리용어집 'Verwaltungslexikon'초판에서는 많은 행정관리자와 과학전문가들이 "회색문헌은 과학보고서, 계획서, 조사서, 전문기술서, 연보, 그리고 학회지 등으로 이들은 출판의 형태가 아닌, 좀 더 엄밀히 말해서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Debachere 1995). 독일에서는 회색

문헌의 범주에 전형적인 출판사에서 발행되지 않으며 주로 행정자료나 연구자료로서 용역에 의해 수행된 실태보고서, 연구보고서 또는 협회발간물이나 私的자료를 포함시킨다. 일본의 회색문헌 연구기관인 DEVSIS(1976)에서는 회색문헌을 상업적 출판도서와 비교하여 정의하였는데, 서지 통정이 통일화되어 있지 않아서 표준화가 어렵고, 생산과 유통이 한정된 문헌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통상적인 출판물의 유통 경로를 통하지 않아 입수에 어려움이 많은 자료를 회색문헌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회색문헌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인 상업용 출판유통구조를 통해 발행되지 않는 자료로서, 접근이 어려운 자료, 여기에는 과학·기술보고서, 번역문, 논문, 회의록, 내부잡지(house journal), 무역관련 및 정부 공식문서 등이 속한다.'로 하고 있다.

이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회색문헌은 '출판사와 같이 배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중에서 내부 이용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자료를 총칭한다. 따라서 서지사항을 비롯하여 출판에 관계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2.2 회색문헌의 종류

단행본, 학술지가 연구성과를 정보전달 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회색문헌은 비공식적인 정보전달 매체의 성격이 강하며 공식적인 연구성과로 전문가에 의해 인정받기 1년전부터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회색문헌을 입수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은 소규모의 집회, 전국수준이나 국제수준의 학회 등을 통해서이며, 이외에 미완성 원고, 출판전 배포문, 리프린트 등도 포함되지만, 이들 미디어의 대부분이 그 보고내용의 주요부분을 최종적으로 잡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학술정보 전달과정에 있어서 회색문헌의 정보교환은 공식적인 영역에서 발표되는 정보의 온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회색문헌은 각각의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역할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종류와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학위논문을 회색문헌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박사학위 논문만을 회색문헌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회색문헌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미국의 회색문헌 정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기술보고서와 같이 일반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백색문헌의 특징가운데 생산을 예측하거나 혹은 열람, 구입에 따른 가격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 회색문헌의 특성이다. 구체적인 회색문헌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정부지원의 조직체나 연구기관, 전문단체, 기업체, 각종 협회, 소규모의 단체 및 개인에 이르기까지 생산처가 상업적이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 특별한 대상을 위해 발행된다.
- 정보생산자가 출판과정이나 배포과정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는다.
- 발행상의 표준형식이 없으므로 서지적 요소가 불완전하다.

- 보고서인 경우에는 상세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술잡지 등에 게재하기에는 내용이 과다하지만 간혹 게재하기에 분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 1책 1논문 형식으로 발행된다.
- 부정기적으로 발행된다.
- 輕 인쇄판이거나 micro form으로 발행된다.
- 출판이나 발행상의 소요경비가 대체로 저렴하며 소요시간도 짧다.
- 발행과정에서 평가를 거치지 않으므로 질적인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회색문헌의 종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도출의 기준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회색문헌의 종류별 특성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회색의 종류에 따라서 회색문헌의 종류를 이용자의 접근용이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백색문헌과 가까운 자료로부터 회색문헌, 어두운 회색문헌으로 구분하였고, 어두운 회색문헌으로 갈수록 외부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2.3 회색문헌의 학술적 유용성

회색문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회색문헌의 정보로서의 가치는 신속한 발행에 따라 시간 지연(time lag)이 감소하며, 연구분야와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출판되어 백색문헌에 비해 중요한 연구결과를 단기간에 입수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속한 발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편집과 생산에 매우 유연하고, 국가 표준이나 국제 표준에 매우 자유롭고, 어떤 표준적인 규칙을 강요받지도 않

<표 1> 회색문헌의 종류

회색의 종류	종 류	특 징
밝은 회색문헌 (Light grey)	정부 발간보고서 정부기관 통계 국가 및 국제 표준 홍보용 뉴스레터 법률관계 자료 학위논문(박사학위)	공개를 목적으로 출판된 자료로서 주로 정부기관에서 출간되는 문헌
	학회발표논문집 학술대회발표문 프리프린트	구술로써 저자가 직접 외부인에게 자신의 연구결과를 표현한 문헌
회색문헌 (Grey)	보고서 (기술보고서) (내부보고서)	외부로 보급할 목적이 없고 동일한 목적을 갖는 집단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문헌
어두운 회색문헌 (Dark grey)	내부조사 보고서	존재의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특정한 혹은 특정단체가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문헌

고 중개 시스템의 엄격성을 강요받지도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회색문헌은 현재 연구되고 있는 각종 주제와 연구결과를 가장 신속하게 제안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백색문헌에서 얻지 못하는 최신정보들을 회색문헌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또한 회색문헌은 공식문헌의 3-4배에 이르는데 (Farace 1997), 이는 회색문헌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전 배포기사를 포함하여 백색문헌에 비해 완성도가 낮은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회색문헌은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거나 끝난 직후에 기술된 문헌이므로 최신성이 뛰어나며, 학술지의 논문이나 단행본보다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식문헌에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구자는 회색문헌 정보의 생산자임과 동시에 이용자이므로 비공식적인 영역 내에서는 이 두 역할을 거의 동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상호작용에 의한 정보교환도 회색문헌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회색문헌이 백색문헌에 비해 이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Carroll(1993)은 회색문헌의 이용 폐쇄

성과 불안정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회색문헌은 1)공식적인 전문가 평가 및 심사 부재, 2)상업적인 유통 경로 부재, 3)특정하게 선전된 혹은 의뢰한 기관에 한정 배포, 4)다듬어지지 않은 연구결과를 포함, 5)일반적으로 특정기업이나 도서관에서 서지 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감독 하에서만 배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등이 회색문헌의 이용활성화를 낮추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Carroll, Cotter 1993).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현이(2000)는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자들이 회색문헌을 사용하는 원인을 <표 2>와 같이 분석하여 회색문헌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회색문헌을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가치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최신의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이용행태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회색문헌이 심사규정이나 표준규정이 없이 생산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회색문헌의 이용빈도가 높은 이유

회색문헌의 이용빈도가 높은 이유	비율(%)
연구활동에 필요한 가치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29.4
정보센터(자료실)에 회색문헌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다	20.6
이용이 편리하다	20.6
최신의 정보가 들어있다	20.6
사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8
합 계	100

3. 회색문헌의 이용활성화 방안

회색문헌은 학술적 가치와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공유와 활용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는 체계적인 공유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개인 자산이라는 생각이 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회색문헌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서들의 생각과 판단을 조사하였다.

3.1 이용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회색문헌의 가치와 활용도 및 공개에 대한 사서들의 의지와 생각을 판단하기 위해 회색문헌을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기관과 이용빈도가 높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회색문헌 이용활성화는 대부분 실제 최종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색문헌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정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본 항에서는 실제 회색문헌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회색문헌에 대한 의견과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대상기관

으로 선정한 기관들이다.

- 국가기관 : 국회도서관
- 대학교 :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 정보서비스 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기업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표 3>은 실제 관리자들이 회색문헌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 결과 조사대상기관의 42.8%만이 회색문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정보관리 담당자는 정보를 제공할 때 회색문헌과 백색문헌을 구분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회색문헌의 존재에 대한 인지보다는 주요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에 굳이 회색문헌을 구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정보관리담당자의 회색문헌에 대한 판단과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불온자료로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자료'라는 질문과 그 밖의 질문에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회색문헌에 대해서는 정보관리 담당자들도 서로 상이한 가치 기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회색문헌의 포괄적이며 총괄적인 서비스를 수집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표 3> 회색문헌 명칭의 사용여부

질 문 1	예	아니오
귀 기관에서는 정보자료의 유형으로서 '회색문헌'이라는 명칭을 평소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42.8%	57.2%

<표 4> 회색문헌의 정의

질 문 2	항 목	인지도
다음 중 '회색문헌'이라고 판단하시는 항목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출판물의 경로를 통하지 않아 입수에 어려운 자료	100.0%
	불온자료로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자료	42.9%
	판매가 되지 않는 자료	57.1%
	서지류에 게재가 되지 않는 자료	28.4%
	일반 백색자료에 비해 학술성, 신속성 등에 있어 가치를 더 많이 갖는 자료	42.9%

또한 조사대상 전원이 회색문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통상적인 출판물의 경로를 통하지 않아 입수에 어려운 자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회색문헌은 일반적으로 유통에 제약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유통에 관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항은 57.1%의 응답을 보인 '판매가 되지 않는 자료'이다.

<표 5>는 정보관리 담당자에게 중복답변을 전제로 하여 회색문헌의 종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전원은 보고서와 사내자료를

회색문헌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었다. 한편 회의록과 대학간행물, 지도 등은 일반적으로 회색문헌류에 포함되지만, 이를 회색문헌 범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회의록이나 지도, 대학간행물의 학술적, 혹은 정보로서의 가치를 다른 회색문헌류에 비해 정보관리담당자들이 낮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입수의 용이도와 함께 학술적 활용도가 다른 회색문헌류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표 6>은 외부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있

<표 5> 회색문헌의 유형

질 문 3	회의록	보고서	문서자료	사내자료	대학간행물	지 도
회색문헌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자료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7	6	7	2	1
	71.4%	100%	85.7%	100%	28.6%	14.3%

<표 6> 수집대상 회색문헌의 종류

질 문 4	회의록	보고서	문서자료	사내자료	대학간행물	지 도
외부 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회색문헌의 종류는?	5	7	1	1	2	1
	71.4%	100.0%	14.2%	14.2%	28.4%	14.2%

<표 7> 회색문헌의 이관에 대한 조사

질 문 5	예	아니오	총 계
자체 생산된 회색문헌을 특정 기관에 이관 합니까?	14.3%	85.7%	100%

는 회색문헌의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모든 기관에서 회색문헌으로 수집하고 있었으며, 회의록도 수집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서자료나 사내자료, 지도 등은 연구나 경영적 정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의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회색문헌공유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집의 우선 순위를 일차적으로 보고서와 회의록에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표 7>은 자체 생산한 회색문헌의 처리에 대한 기관방침과 정책을 조사한 결과이다. 즉, 자체 생산한 회색문헌을 자관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기관에 이관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상급기관이 있는 한 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이관의 필요성이 없다고 답을 하였다. 이는 자체 생산한 회색문헌의 교환이나 기증은 가능하지만 특정한 규정이나 법에 의해 다른 기관에 자신들의 회색문헌을 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였다. 이것은 향후 회색문헌 집중 관리기관의 설립시에 회색문헌의

체계화된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였다.

<표 8>는 회색문헌을 이관한다면 어느곳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로, 중복답변을 허용하였다. 이 조사에서 1개 기관은 상급기관인 건교부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을 하고 있다고 답을 하였으며, 1개의 대학에서는 이관은 아니지만 협조차원에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자체 생산하고 있는 학위논문을 보내주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대학교의 경우 이관보다는 자발적인 협조의 차원이므로 괄호에 표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법률과 규정이 정하고 있지만 납본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회색문헌의 집중관리기관이 설립되어도 법률과 규정에만 의지하여서는 원활한 회색문헌 수집이 어렵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조사결과 상급기관으로의 이관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급기관과의 관계가 명

<표 8> 이관 대상 기관의 조사

질 문 6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기 타
이관을 한다면 그 대상은?	(1)	(1)	1
	14.2%	14.2%	142

<표 9> 회색문헌관리규정의 존재여부

질 문 7	예	아니오
자체 생산 자료의 관리 규정(납본 규정)이 있습니까?	1	6
	14.3%	85.7%

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의 이관에 협조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 개의 기관만 (14.3%)이 자료를 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관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이관이 보다 강력한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경우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향후 회색문헌 수집에 있어 법적인 강제규정보다는 참여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이 더욱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표 9>는 회색문헌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는 앞의 <표 3>과 <표 6>에서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회색문헌에 대한 명백한 판단 기준이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관리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회색문헌에 대한 것을 백색문헌과 별개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구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재산 관리규정이 있을 뿐 회색문헌만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회색문헌과 백색문헌의 취급시 저작권법이나 디지털 변화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할 경우에 회색문헌의 관리 규정이나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0>은 자체 생산한 회색문헌을 다른 기관과 교환하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관은 57.2%이나 부정적인 시각도 42.8%로 회색문헌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의 교환에는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학위논문 교환을 점차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만일 위의 설문이 학위논문을 제외한 조사였다면 모든 기관이 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색문헌을 집중관리하는 기관에서는 학위논문의 수집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위논문은 그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물리적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이용의 빈도가 적기 때문이다.

<표 10> 회색문헌 교환의 의지

질 문 8	예	아니오	총 계
타 기관에서 귀 기관에서 생산하는 회색문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4	3	7
	57.1%	42.8%	100%

<표 11> 회색문헌 외부이용자 조사

질 문 9	예	아니오	총 계
회색문헌 열람을 요구하는 외부 이용자(기관포함)가 있습니까?	5	2	7
	71.4%	28.5%	100%

<표 11>은 조사대상기관에서 회색문헌의 외부 이용자를 확인한 것이다. 이는 조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회색문헌의 이용을 장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이용자들의 회색문헌 접근을 조사한 것이다. 국가 주요기관에서는 외부이용자의 회색문헌 열람을 자체 사정으로 불허하기 때문에 열람자가 없다는 '아니오'로 답을 하였다. 많은 이용자들은 각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생산한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공식적인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소재정보를 파악하여 접근하고 있었다. 향후 국가차원의 공유시스템이 존재할 경우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이용빈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표 12>는 조사대상기관에서 회색문헌을

이용하는 계층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내부이용자들이 대부분이며 외부이용자들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많았으나 학부 혹은 대학원 재학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외부에서 연구원들도 회색문헌에 대한 활용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원이나 학생들이 각자의 소속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와 같은 정보관리 채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는 것은 향후 회색문헌 집중관리시 소속기관의 담당자를 통한 자료입수방법과 함께 개별적인 회색문헌 입수 채널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은 정보관리 담당자에게 회색문헌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가를 조사한 결과

<표 12> 회색문헌 외부이용자의 유형

질 문 10	외부이용자		
	연구원	학생	일반인
회색문헌의 주 이용자는 어떤 계층입니까? (중복표기 허용)	33.4%	44.4%	22.2%

<표 13> 회색문헌의 공개

질 문 11	완전 공개	부분 허용	금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공개합니까?	
				예	아니오
회색문헌에 대한 외부 이용자의 접근 허용여부	-	71.4%	28.6%	14.2%	-

<표 14> 회색문헌의 공개 계획

질 문 12	예	아니오	총 계
향후에 전자도서관과 같은 외부서비스 창구를 만들어 회색문헌을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57.1%	42.9%	100%

이다. 모든 기관이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을 하였으며, 이는 공개의 필요성과 함께 정보로서의 가치보다는 내부 지식이라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특히 28.6%가 공개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을 하였으며 이는 자체 규정에 의해 외부 이용자들에게 회색문헌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치이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에 따른 내용적인 책임과 소속 기관의 비용으로 구축한 지식의 공유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흘러도 대부분의 기관이 회색문헌은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회색문헌이 정보보다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지적자산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표 14>는 정보관리 담당자에게 외부서비스 창구를 통해 회색문헌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를 조사할 결과이다. 이는 앞의

설문과 상이한 결과였다. 책임과 법적인 문제, 유료화라는 조건이 해결될 경우에는 회색문헌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57.1%에 해당하였다. 또한 어떤 조건에도 회색문헌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2.9%로 향후 외부 회색문헌 집중관리센터가 설립되어도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표 15>는 조사대상기관에서 유료의 형태로는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산적 가치보다는 고정자산이라는 의지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기관이 3개 기관였다. 또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유료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관도 1개기관으로 공개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은 내부 이용자가 회색문헌을 요

<표 15> 회색문헌 유료화 공유의지

질 문 13	예	아니오	총 계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유료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	100%	100%

<표 16> 유료 회색문헌 열람 가능성

질 문 14	예	아니오	총 계
미 소장 자료에 대해 타 기관의 자료를 유료로 열람할 용의가 있습니까?	7	-	7
	100%	-	100%

<표 17> 회색문헌 집중관리기관의 필요성

질 문 15	예	아니오	총 계
회색문헌의 수집과 유통을 위한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	7
	100%	-	100%

청할 경우에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회색문헌을 유료로 열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긍정적으로 답을 하여 회색문헌 집중관리센터가 설립되어 유료로 서비스되어도 이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앞의 <표 15>와 매우 상반된 설문내용으로, 소속자산인 회색문헌을 유료일지라도 외부에 제한하겠다는 결과와 대조적이다. 향후 회색문헌집중관리시스템에서 자료의 공유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유인책보다는 교환을 통한 정보공유 개념의 유인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7>은 회색문헌 집중관리기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로서, 모든 기관에서 회색문헌 집중관리 기관 설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회색문헌의 체계적인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사서와 같은 정보서비스담당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안이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즉 국가차

원에서 회색문헌 유통 전담기관의 설립은 모든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바라는 것이며, 현재 회색문헌의 효율적인 수집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여러 개의 회색문헌 집중관리기관보다는 하나의 회색문헌 집중관리기관에서 통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18>은 회색문헌 집중관리센터가 설립될 경우에 지원센터의 형태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5개 기관이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으며, 1개 기관은 부정적인 답을, 한 개 기관은 응답하지 않았다. 무응답과 부정적인 시각의 의미는 회색문헌 집중관리센터의 역할을 자신이 소속한 기관에서 담당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이라 판단한다. 이는 하나의 회색문헌 집중관리센터만이 설립될 경우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8> 회색문헌 집중관리센터 참여의지

질 문 16	예	아니오	무응답	총 계
국가 회색문헌센터가 설립될 경우 공동협력지원센터(곤소시움형태)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5	1	1	7
	71.4%	14.3%	14.3	100%

3.2 이용활성화 방안

회색문헌의 유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요 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회색문헌의 공유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색문헌집중관리 기관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국내 생산 회색문헌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설립되어야 한다. 국가차원의 집중관리시스템에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는 회색문헌의 수집과 유통에 대한 것이다.

앞의 설문연구에서 조사한 것에 기초하여 회색문헌 이용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회색문헌 집중 수서를 위한 유인책 개발

대부분의 기관은 자관에서 생산되지 않은 회색문헌을 수집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타기관 소장 회색문헌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있다. 자관의 회색문헌에 대한 외부이용자들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각 기관 정보관리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회색문헌의 접근허용을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회색문헌 집중 수서를 경제적 논리보다는 자원의 공유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회색문헌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의 기본 정책은 과금체계보다는 공유한 회색문헌의 양이 증가하고 접근이 용이할수록 그 성공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 회색문헌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개발
회색문헌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 회색문헌의 출판 및 소재정보를 일차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회색문헌의 관리는 크게 서지데이터 관리와 본문 정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색문헌의 수집과 이용활성화 목적이 국가 지식의 공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이기 때문에 이의 활용을 위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회색문헌의 이용도가 낮은 것은 회색문헌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회색문헌집중관리센터는 모든 학자나 연구원, 개인 등에게 회색문헌의 2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색문헌의 첫 번째 관리 사업은 국가 생산 회색문헌 종합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회색문헌을 생산하는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회색문헌의 특성상 부정기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인쇄 형태보다는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등록되는 형태의 전자 종합목록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KCR4나 KORMARQ와 같은 국가 표준서지 목록에서 표현되지 않은 자료의 공개여부와 어디에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소장처정보(Holding & Location)가 아니라 자료를 어느 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정보(Guide Information)이다.

미국의 설문결과이지만 회색문헌의 중요성은 단순히 초록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열람욕구를 최소한 수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본문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접근방법과 정책을 반드시 유도해야 한다 (김미진, 배순자, 남영준 2002). 즉, 종합목록과 함께 회색문헌의 본문을 연결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시스템은 기계적인 것과 함께 해당 회색문헌을 물리적 형태로 이관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소장기관과 연계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4. 결 론

도서관과 같은 정보기관은 이용자에게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백색문헌과 회색문헌을 함께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회색문헌을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수집, 처리 및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 회색문헌은 정보제공의 범위를 내부 이용자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열람과 정보제공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회색문헌 이용 활성화와 회색문헌의 내부 열람이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색문헌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정보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색문헌의 중요성과 그 활성화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와 그 결과에 근거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실제 정보관리 담당자들의 57.1%가 회색문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이용자와 도서관 현장에서 회색

문헌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회색문헌의 집중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협력기관으로 협조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어 향후 단독기관으로 회색문헌집중관리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회색문헌의 수집이 유료화 될 경우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모든 기관이 이를 수용하며, 회색문헌 집중관리기관의 설립과 관계없이 회색문헌을 유료로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회색문헌의 수집을 위한 일차적인 유인책은 유료화에 따른 경제적 지원보다 협력기관간 회색문헌공유라는 정보공유에 따른 협조가 우선함을 확인하였다.
- 회색문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각 기관에서 소장하거나 혹은 생산하고 있는 회색문헌의 서지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서지나 초록정보 이외에 본문정보까지도 공유하는 시스템이나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은 국가가 담당하는 정보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미영, 2002. 『회색문헌의 생산현황과 관

- 리-부산대학교 내 37개 연구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미진, 배순자, 남영준. 2002. 『국내 회색문헌의 수집, 처리 및 서비스 체제 구축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김태중, 이창한, 최명규 외. 1998. 『공공 정보서비스 체계의 합리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남영준, 배순자. 2003. 회색문헌의 수집, 처리, 서비스 고도화 방안. 『지식정보처리학회지』.
- 배창섭. 포커스/과학기술정보의 효과적 수집 및 DB활용(1). 국내 대형 서비스 업체를 적극 이용하라 <<http://www.dpc.or.kr/dbworld/document/9703/focus.htm>>[online]. [cited 2002. 10. 2]
- 신은자. 1999. 전자 회색문헌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6(3): 83-99.
- 정현이. 2000. 『회색문헌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최선희, 조현양, 오상훈. 1997. 인터넷을 통한 회색문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5-58.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5. 과학기술 정보서비스(KRISTAL)위 과학기술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월드』
- Almeida, Mario do G.G. 1999. "Control Access for grey Literature in Brazil: A Proposal", In: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 GL 99 Conference Proceedings* : Washington D.C., 4-5 October 187-189.
- Auger, C. P. 1996. *Information Sources in Grey Literature* 4th ed. London : BOWKER - SAUR.
- Bichteler, Julie P. 1991. " Geologists and gray literature : access, use and problems."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11(3): 39-50.
- Carroll, B., G. Cotter. 1993. " A new generation of grey literature : the impact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5-17.
- Debachere, M. C. 1995. " Problems in obtaining grey literature." *IFLA Journal*21 (2) : 94-98.
- DEVSI. 1976. *The preliminary design of an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development science* Ottawa, IDRC.
- Farace, D. J. 1997. " Rise of the Phoenix : a review of new forms and exploitations of grey literature."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 13(2):69-76.
- Pinelli, T. E., J. M. Denny and R. O. Barclay. 1991. " The NASA/DoD Aerospace Knowledge Diffusion Research Projec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8(2) : 219-233.
- Sturges, P. " Social Intelligence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role of grey literature", In: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 GL 97 Conference Proceedings* Luxembourg 13-14 November : 31-45.

Wood, D. N. 1984. " The collection, bibliographic control and accessibility of grey literature." *IFLA Journal* 10(1): 278-282.